

한약재 관능검사 지표마련

200여종 선정 품질평가방법 상세히 밝혀

「한약재 감별도감」

관능검사 만으로도 한약재의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가릴 수 있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맡아 연구를 진행해온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신민규)은 최근 대한약전과 한약규격집에 수재된 한약재 514종을 기준으로 처방빈도가 높은 품목 200여종을 선정해 한약재 관능검사 진위를 감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했다.

특히 현재 시중 유통중인 한약재를 수집해 원형사진과 함께 절단된 상태의 한약재를 게재함으로써 유사품 및 위품구별이 용이하도록 했다. 또한 각계 전문가와 한약재 감별위원 설문조사를 통해 한약재의 감별 가중치 순위를 제시, 판별능력을 극대화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연구는 또 국산품과 수입품의 상·중·하품에 관한 성상과 품질에 관한 평가 방법 등을 상세히 밝혀 그동안 업계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던 국산과 수입산을 혼용한 한약재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 실제 한의약계가 현장에서 응용할 경우 불량 한약재 적결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고병선 박사(한국한의학연구원)와 주영승 교수(우석대 한의대)는 “한약재 감별기준 연구는 개인의 주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없애고 객관화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짧은 연구기간과 예산상의 부족으로 연구를 진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별경험을 체계적으로 기술해 감별연구의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한약재 감별도감’은 현장에서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건작 복지부 한방정책관은 ‘한약재 감별연구결과

는 식약청, 관세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2년 가량 실무에 적용한 후 ‘미약한 부분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한약재 품질 관리는 국민보건에 직결되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에 연구에서 제외된 314종의 한약재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약재 감별연구는 그동안 제도권 영역 밖에서 논의돼 오던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정부가 한약재 품질관리라는 측면에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홍삼은 천연 ‘비아그라’

발기부전 효과 탁월...부작용 없어

우리나라 인삼으로 만든 고려인삼이 발기부전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연세대 의대 비뇨기과학실 및 남성의학연구소 최형기 교수팀은 한국·중국·싱가포르인을 대상으로 홍삼의 발기부전 치료효과를 실험한 결과 발기력 증진이나 성행위 빈도, 만족도 등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최교수팀은 한국인 25명과 중국인 20명, 싱가포르인 19명 등 모두 64명의 발기부전 환자에게 3개월간 홍삼과 가짜약(위약)을 투

여한 뒤 면담과 설문지로 치료효과를 확인하는 비교 실험을 했다.

실험후 설문을 통해 객관적인 변화를 조사한 결과 홍삼을 복용한 환자 가운데 72.9%가 발기력 증진, 64.9%가 성행위 빈도 증가, 62.1%가 만족도 향상효과를 얻는 등 전체의 70.2%가 발기부전 치료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교수는 “고려홍삼이 한국인 뿐만 아니라 아시아인에게도 부작용이 거의 없이 발기부전 치료효과를 나타냈다”며 더 폭넓은 연구와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활성 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된다

진천군, 진천읍에 13만5천본 야생식물 식재

진천군에 새로운 볼거리인 야생화 생태공원이 조성된다. 진천군은 우리나라 고유의 야생경관 복원과 이를 통한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생화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군은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표된 이후 각국에서 자국의 생물자원 보호와 상업적 이용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진천지역에 자생식물을 한 자리에 조성하고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함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계획중인 야생화 생태공원에는 진천읍 교성리 숲가

꾸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 6000여평의 부지에 우리나라 야생화 50여종을 식재하게 된다.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하는 야생화 생태공원에는 모두 13만 5천본의 야생식물이 식재되며 인근에는 등산로등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군은 야생화 생태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토종자생식물의 보전과 도시림 관리에 좋은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야생화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관광객 유치 및 학생들의 학습장소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시, 지리산 자락

웃나무 집중 재배

남원 지리산 자락에 웃나무가 집중 재배된다.

남원시에 따르면 전통 특산물인 남원 목공예품 생산에 필요한 웃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2년까지 1억여원을 들여 산내면과 운봉면, 주천면 등 지리산 자락 일대에 웃나무 밭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에 3천5백만원을 들여 웃나무 밭을 조성, 이곳에 웃나무 1만5천~3만 그루를 심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향기 그윽한 ‘꽃차 개발

보성차시험장, 녹차에 아카시아등 혼합



녹차에다 아카시아·흑장미·치자·황국화 등 꽃향이 어우러진 우아한 맛을 지닌 꽃차가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 보성차시험장은 최근 녹차와 자소·황국화·흑장미·취·치자의 꽃을 이용,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7가지 꽃차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한 꽃차는 잎이 자색을 띠고 있는 자소꽃차를 비롯해 노란색 황국화를 이용한 황국화차, 특유의 향을 지닌 아카시아꽃차, 매혹적인 아름다움과 향을 내는 흑

장미차 등 다양하다.

보성차시험장 차 가공연구팀 조경숙 연구사는 “식용이 가능한 꽃 가운데 향이 좋고 색상이 선명하면서도 꽃송이가 작은 꽃잎을 60℃에서 수분함량 4~5% 상태로 말린 다음 녹차에 5~10%가량 혼합, 맛과 향이 그윽한 꽃차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전주 약령시’ 60년만에 부활

11월17~21일 거리재현, 한방 무료진료

조선시대 전국 3대 약령시로 명성을 떨쳤던 전북 ‘전주 약령시’가 올 가을에 부활된다.

전주시는 최근 도내 13개 관계기관·단체대표가 참여한 전주약령시제전위원회(위원장 정현국·전북한의사협회장)와 협의 끝에 오는 11월17~21일까지 5일간 전주 약령시 제전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한말까지만 해도 대구·원주 약령시와 함께 전국 3대 약령시로 명성이 높아 전국의 한약상들이 몰려들었던 전주 약령시는 사라진지 60여년만에 재현의 기쁨을 맞게 됐다.

이번 전주 약령시 제전에는 전주시 남문과 다가동 우체국 부근의 약령시거리 재현

과 각종 한약재 전시판매 및 한방무료진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계획이다.

당귀포럼 개최

한국약용작물학회

한국약용작물학회는 오는 11월5일 한국농업전문대학교에서 '99임시총회 및 추계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히 △한약재의 농업적 배경 및 발전방향 △당귀의 기원식물 및 활성 △당귀 재배상의 문제점 및 대책 △당귀 최저 소득보장 및 유통방안 △당귀를 이용한 식품개발 현황 및 전망 등을 주제로 한 당귀포럼이 개최될 전망이다.

밭을 조성해 웃나무를 심기로 했다.

시는 웃나무 밭을 새로 조성하려는 농가에 대해서는 묘목값과 인건비로 가구당 3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산초나무 농가소득 주목

평창군, 재배지원 확대

산초나무 재배를 통한 산초유 생산판매가 농가의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평창군은 최근 의학적인 효능과 다양한 식품첨가제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산초나무 재배기술과 이용

방법을 농·산촌에 보급하는 등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초나무는 재배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지 않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10년 이상 3.3㎡당 2만원 정도의 수입이 보장된다.

지난 70년대초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를 구입 생산된 묘목을 주민들에게 보급한 산초나무는 추위에 강한 특성때문에 평창읍과 미탄·방림·대화면 지역이 재배적으로 나타나 현재 11ha의 산초나무 단지가 조성돼 있다.